돌, 백일/ 회갑, 고희연/ 각종 모임행사
용정웨딩홀 · 뷔페
Tel : 031)533-4466 Fax : 031)536-4466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하오(好) 중앙출장뷔페 www.jawh.co.kr
중앙웨딩홀 뷔페
백일, 돌, 회갑, 고희연, 집들이, 예식, 개원식, 각종모임등
Tel. 031)536-1868, 2555

【주간】1990년 1월 15일 창간 ☎ 031-542-1506~7
Pocheon sinmun
제407호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장명재 김영우 박윤국 대결구도 전망

고조흥 국회의원 출마여부가 최대 관심사

4.9국회의원 선거 D-20

장 명 재 (통합민주당 · 46세)

김 영 우 (한나라당 · 41세)

박 윤 국 (무소속 · 51세)

4.9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는 장명재 통합민주당 후보와 김영우 한나라당 후보, 박윤국 무소속 후보, 김성규 평화통일 가정당 후보의 4자 대결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4자 구도라고 하지만 김성규 후보의 득표력이 약한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3명의 후보간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차상구 회계사와 박용구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 등이 김영우 후보지지 선언을 했으며, 한나라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고조흥 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여부에 따라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대결구도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19일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무소속 친박연대 측에서 출마제의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

장명재 후보는 승부처가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 후보는 총선의 경우 당 대 당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만큼 3명의 후보가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근소한 차이로 장명재 후보 본인 승리를 점치고 있다. 전통적 지지층과 자신을 지지하는 층을 감안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깨끗한 선거와 유권자 접촉을 통해 지지층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이미지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총선 승리를 이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

김영우 후보는 포천시와 연천군이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자신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또 김 후보는 포천과 연천군 한나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본인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차상구 회계사와 박용구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가 함께 함으로써 압승을 자신하고 있다.

아울러 포천과 연천지역 민심이 지역경제 발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힘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또한 누구나 정책공약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에서 힘있는 후보로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소속 박윤국 후보

박윤국 후보는 이번 선거 승부가 통합민주당 후보와 자신이 자웅을 겨룰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천과정에서 민심이 한나라당을 떠났다고 보고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의 특징은 무소속이 약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박윤국 후보는 선거전은 선거환경과 여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동안 지지해 준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보고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당선되어 선거 혁명을 이루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통일 가정당 김성규 후보

이번 국회의원 후보중에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김성규 후보는 출마하게 된 동기가 가정에 행복을 선물하고 싶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규 후보는 "연천과 포천 지역이 분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각종 군사시설보호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역간 갈등, 여야간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김영우 한나라당 후보 지지선언

차상구 박용구 기자회견 가져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차상구, 박용구 예비후보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영우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용구 예비후보가 낭독한 김영우 후보지지 성명서에서 이들 2명은 "10년 만에 되찾은 우파 이명박 정부를 힘껏 밀어주기 위해서는 단연코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원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우리지역을 대표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지역 김영우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및 그 최측근들과 언제나 연계가 가능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 무대에서 큰 일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민주정치 실현이라는 대의에 부응하고자 기꺼이 한나라당 당헌과 당규에 따라 공심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김영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저희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께서도 뜻을 함께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셨던 정강, 정책을 김 후보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서 "한나라당이 더 이상 공천문제로 국민의 품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이 6월4일 치러지는 포천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관해 주고받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박용구 예비후보는 "최근에 김영우 후보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보궐선거 포천시장 공천 밀약은 전혀 없었다"면서 "김영우 후보 당선과 한나라당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차상구 예비후보 대리인(왼쪽), 박용구 예비후보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영우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포천신문사 주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일시 : 2008년 3월 25일 오전10시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
▶사회자와 패널초청 방식으로 사회, 경제, 교육, 교통, 환경 문제 등 100분 토론진행

지금 포천은 이렇다 ㊺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다시 추진되나

市-議會 우수 시설관리공단 동행 방문

시설관리공단 설립여부를 놓고 2006년부터 끌어온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합의점을 도출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포천시와 시의회는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현재 민간대행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관리공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의회 의견과 시간을 두고 포함해야 한다는 포천시 입장이 팽팽이 맞서 추진이 보류되어 왔다.

최근 포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추진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시의회와 논의한 끝에 경기도내 우수 시설관리공단을 함께 견학한 후 조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와 시의회는 집행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8명, 시의회 전문위원 등이 오는 21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오산시, 용인시, 군포시 등 4개 도시를 방문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청소대행업무 및 아트홀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장단점 분석, 4개 도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포천시와 시의회간 조율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포천시와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운영 업무를 공단위탁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심의보류 된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논의의 쟁점이 되고있는 "포천시 청소업무는 권역별로 4개 업체에 위탁된 상태"라며 "포천시가 청소업무 위탁을 철회할 경우 청소대행 업체 지원 퇴직금과 장비대금 등을 처리해 줘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줘야하는 입장이고 대행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소업무를 꼭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기존 대행업체에게 위탁한 사항을 유지하면서 포천신도시 개발이나 소흘읍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업무가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청소업무의 2원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포천시 관계자는 21일 포천시의원들과 경기도내 4개 도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견학한 후 의견을 조율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그는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여부에 대해 4월초나 중순까지는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포천아트밸리와 청소년 수련관 등 각종 시설물 완공을 앞두고 관리인력을 요청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 심의 보류된 상태로 그동안 논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4개 도시 시설관리공단 견학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업무는 꼭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포천시가 생각하는 청소업무의 2원화는 바람직하다 않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청소업무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4개 업체에 위탁하면 불필요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청소업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면 대행업체들이 즉시 시정하지 않는데 반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시정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시는 그동안 포천아트밸리를 비롯해 광역터미널, 포천아트홀, 자원회수 시설, 청소년 수련원 등이 완공되었거나 완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종근 위원장은 "포천아트밸리나 광역터미널 등은 집행부 수장이 무리하게 추진해 이들 시설은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추진중인 포천공항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